

지난주 토요일에도 나의 친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63빌딩에서 있었기 때문에 평소 결혼식 같은 것에는 참석하지않았던 할머니와 동생도 함께 갔습니다. 왜냐하면 63빌딩에서의 결혼식은 화려하기로 유명합니다. 결혼식을 보면서 먹는 식사도 1인분에 4만원이 넘습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1000명이 넘으니까 그날만의 결혼비용도 아주 비쌉니다.

한국의 여성으로서 결혼하기위해서 드는 비용은 대략 3천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가정의 경우이기 때문에 좀 적게드는 편입니다. 이렇게 요즘은 한국에서의 결혼식의 진정한 의미는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듯합니다.

한국의 어른들은 주말이 되면 결혼식이 있기때문에 다른 약속을 하는 것이 힘듭니다. 여기 저기에서 보내온 청첩장을 보고 축하하러 가지만 별로 친분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청첩장을 보내오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혼식에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축의금입니다. 얼마나 친분이 있고, 친척인지 아닌지에 따라 축의금도 달라집니다. 대체로 5만원내지는 10만원 정도입니다. 결혼식은 주로 결혼식장이나 호텔, 큰 빌딩에서 있습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식이 전부 끝날때까지 30분도 걸리지않습니다.

하지만 편리하기때문에 결혼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합니다. 그후에는 부모님과 사진을 찍고 피로연을 합니다. 그때 신랑과 신부의 친구들이 함께 즐기며 마십니다. 그후에 신랑, 신부는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요즘처럼 자신의 생활로 바쁜 현대인에게는 결혼식이 하나의 “만남의 장” 이 됩니다. 서로의 인부를 묻기도하고 전하기도하고 인사를 합니다. 한국의 결혼식도 전통적인것보다는 점점 서양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